



# Issue Briefing

EAI·SBS·중앙일보·한국리서치 공동  
대선3차 패널조사  
야권후보 단일화 이후 유권자 패널의 지지 변동

2012년 12월 1일

이곤수\_EAI 거버넌스연구팀장  
정원철\_EAI 여론분석센터 선임연구원

## 1. 박근혜 대 문재인, 오차범위 내 박근혜의 박빙 우세

- 대선 2차 조사결과 대비, 박근혜 후보 11.8% p 문재인 후보 19.4% p 상승
- 분산 된 양강구도 재편 효과

## 2. 지지층의 변동과 안철수 지지층의 이동양상

- 박근혜 후보 지지자 유지율 94.8% 문재인 후보 지지자 유지율 89.7%
- 박근혜 후보 부동층 35.9% 안 전 후보 지지자 15.0% 흡수
- 문재인 후보 부동층 25.6% 안 전 후보 지지자 64.1% 흡수

## 3. 양강 후보의 지지층 충성도

- 약화된 지지층 결집도
- 안 전 후보 지지층과 부동층 유입 결과의 영향

## 4. 박근혜의 한계: 당선되어서는 안 되는 후보 1위

- 부동층의 23.5% 무당파의 30.4% 박근혜 후보 꼽아
- 문재인 후보에 대한 비토세력도 증가추세 나타나

## 5. 대선후보 호감도와 이념성향 인식 변화

- 두 후보에 대한 호감도 동반 하락
- 보수적인 이미지 견고한 박근혜 후보, 중도로 이동한 문재인 후보

## 6. 정당지지율 정체와 무당파의 선택

- 새누리당 지지율 32.8% 민주통합당 지지율 24.4%
- 무당파 42.7%에서 38.1%로
- 무당파 지지율 박근혜 후보 29.6%, 문재인 후보 45.6%

## 7. 대선후보 지지의 핵심 고려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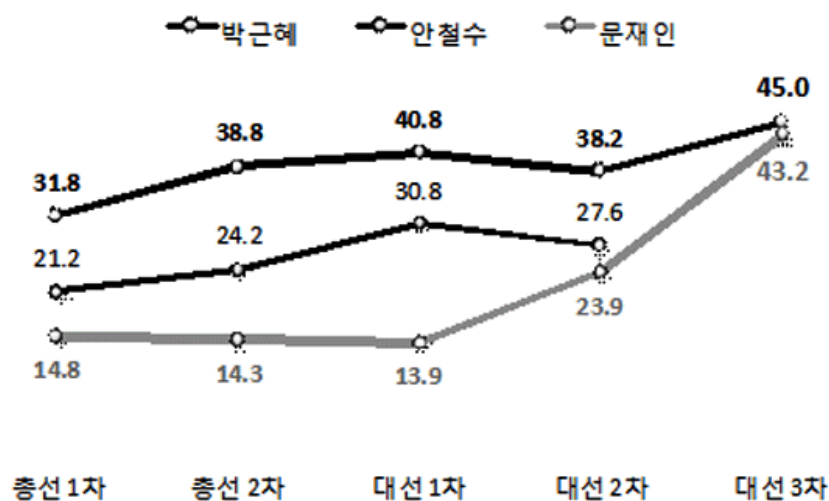
- 확장되는 정책공약 및 소속정당의 영향력



## 1. 박근혜 대 문재인, 오차범위 내 박근혜의 박빙 우세

- 대선 2차 조사결과 대비, 박근혜 후보 11.8% p 문재인 후보 19.4% p 상승
- 분산 된 양강구도 재편 효과
- 박근혜, 문재인, 이정희 및 다른 후보를 대상으로 “내일이 대통령 선거일이라면, 다음 사람들 중에서 누구에게 투표하시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통해 지지율을 조사하였다.
- 조사결과, 안철수 사퇴에 따라 박근혜 후보와 문재인 후보의 지지율이 상승한 가운데 박근혜 후보가 45.0%로 문재인 후보 43.2%에게 오차범위 내 우위를 나타내고 있었다.
- 대선 2차 조사와 비교하여 박근혜 후보는 11.8% 포인트(p) 상승하였고, 문재인 후보는 19.4% 포인트(p) 상승한 결과다. 안철수 전 후보 사퇴에 따른 야권단일화 이후, 안철수 전 후보 지지층이 문재인 후보에게로 모두 흡수된 것은 아니라는 점을 보여준다.

[그림 1] 주요 대선후보의 지지율 변동(다자대결, %)



- 지난 대선 2차의 양자대결 구도에서 나타난 박근혜 후보 47.4% 대 문재인 후보 48.8%의 결과와 비교해도 야권후보 단일화에 의한 양강구도 재편이 문재인 후보에게 유리하게 작용하지는 않았음을 알 수 있다.

## 2. 지지층의 변동과 안철수 지지층의 이동양상



- 박근혜 후보 지지자 유지율 94.8% 문재인 후보 지지자 유지율 89.7%
  - 박근혜 후보 부동층 35.9% 안 전 후보 지지자 15.0% 흡수
  - 문재인 후보 부동층 25.6% 안 전 후보 지지자 64.1% 흡수
- 후보 지지층의 변동을 통해 야권단일화의 효과를 살펴보기로 한다. [표1]과 같이, 안철수 후보 지지층의 64.1%만 문재인 후보 지지층으로 유입되고, 15.0%는 박근혜 후보에게, 그리고 18.7%는 부동층으로 이동하였다.
  - 박근혜 후보의 경우 2차 조사 지지자 94.8%가 그대로 유지하면서, 부동층 35.9%와 안철수 전 후보 지지자 15.0%를 흡수한 것이 문재인 후보에 비해 우세를 점한 원인이다.
  - 문재인 후보는 2차 조사 지지층 유지율이 89.7%이고, 안철수 전 후보 지지층 중 64.1%만을 흡수하였고 무당파층 유입율도 25.6%에 머물렀다는 점에서 야권단일화 효과를 충분히 거두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표1] 대선 후보 지지층의 변동: 대선 2차와 대선 3차 결과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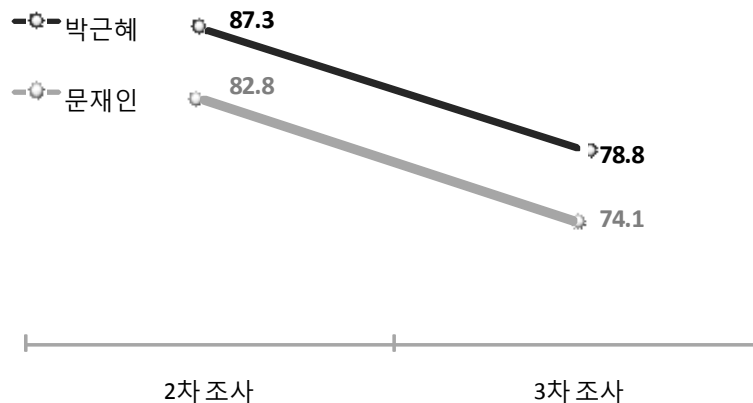
		대선 2차								
		박근혜	문재인	안철수	이정희	강지원	박찬종	없음	합계	
대 선 3 차	박근혜	응답자(명)	471	21	54	0	1	1	42	590
		3차	79.8	3.6	9.2	0.0	0.2	0.2	7.1	100.0
		2차	94.8	6.5	15.0	0.0	20.0	100.0	35.9	45.3
		전체	36.2	1.6	4.1	0.0	0.1	0.1	3.2	45.3
	문재인	응답자(명)	14	288	230	1	1	0	30	564
		3차	2.5	51.1	40.8	0.2	0.2	0.0	5.3	100.0
		2차	2.8	89.7	64.1	50.0	20.0	0.0	25.6	43.3
		전체	1.1	22.1	17.7	0.1	0.1	0.0	2.3	43.3
	이정희	응답자(명)	0	0	0	1	0	0	1	2
		3차	0.0	0.0	0.0	50.0	0.0	0.0	50.0	100.0
		2차	0.0	0.0	0.0	50.0	0.0	0.0	0.9	0.2
		전체	0.0	0.0	0.0	0.1	0.0	0.0	0.1	0.2
	다른후보	응답자(명)	0	0	8	0	2	0	3	13
		3차	0.0	0.0	61.5	0.0	15.4	0.0	23.1	100.0
		2차	0.0	0.0	2.2	0.0	40.0	0.0	2.6	1.0
		전체	0.0	0.0	0.6	0.0	0.2	0.0	0.2	1.0
	없음	응답자(명)	12	12	67	0	1	0	41	133
		3차	9.0	9.0	50.4	0.0	0.8	0.0	30.8	100.0
		2차	2.4	3.7	18.7	0.0	20.0	0.0	35.0	10.2
		전체	0.9	0.9	5.1	0.0	0.1	0.0	3.1	10.2
합계	응답자(명)	497	321	359	2	5	1	117	1302	
	3차	38.2	24.7	27.6	0.2	0.4	0.1	9.0	100.0	
	2차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체	38.2	24.7	27.6	0.2	0.4	0.1	9.0	100.0	



### 3. 양강 후보의 지지층 충성도

- 약화된 지지층 결집도
- 안 전 후보 지지층과 부동층 유입 결과의 영향
- 박근혜 후보의 강점은 견고한 지지층일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기존 관념은 이번 조사에서 누그러진 것으로 조사되었다. 후보에 대한 지지강도 조사결과에서 보면 박근혜 후보는 강한 지지층 78.8%로 문재인 후보의 강한 지지층 74.1%와 큰 차이를 나타내지 않고 있었다. 오히려 지지층의 결집도 또는 충성도는 약화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실제 지난 2차 조사와 비교하면 두 후보의 지지층 충성도는 오히려 약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대선 2차 패널조사에서 박근혜 후보의 강한 지지층 비율은 87.3%, 문재인 후보는 82.8%였다.
- 기존 안철수 전 후보 지지층이나 부동층에서 이동한 유권자들의 충성도가 높지 않기 때문일 것이다. 따라서 부동층 규모는 크지 않지만 본격적인 선거캠페인을 통해 지지층의 교차이동 가능성을 시사한다.

[그림2] 양강 후보의 지지층 충성도(아주 강함+ 강함, %)



### 4. 박근혜의 한계: 당선되어서는 안 되는 후보 1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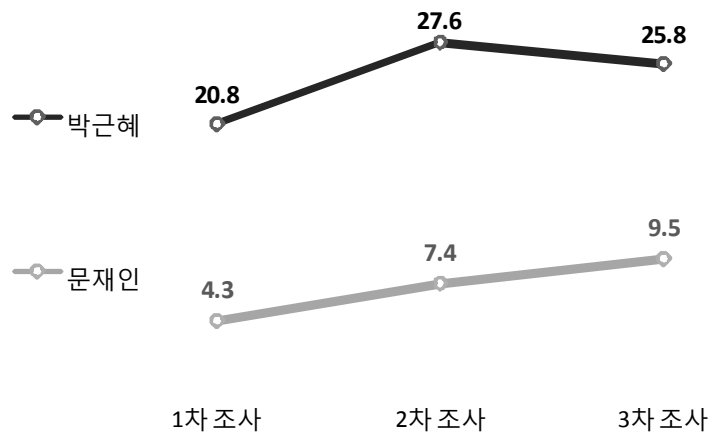
- 부동층의 23.5% 무당파의 30.4% 박근혜 후보 꼽아
- 문재인 후보에 대한 비토세력도 증가추세 나타나
- 박근혜 후보의 확장력 한계는 대통령이 되어서는 안 되는 후보 1순위로 꼽혀 왔다는 사실에서 찾을 수 있다. 이번 조사에서도 박근혜 후보가 당선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응답자



비율이 25.8%였다. 2차 조사에 비해 다소 낮아진 수치이기는 하지만 1차 조사에 비해서는 여전히 높은 결과이다. 박근혜 후보에 대한 비토세력 역시 견고하게 자리하고 있음을 볼 수 있는 근거이기도 하다. 이는 박근혜 후보의 비토집단이 문재인 후보나 야당 지지층에 한정하지 않고 부동층의 23.5%와 무당파의 30.4%가 반대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 문재인 후보의 경우에도 대선 1차 조사에서 4.3%, 2차 조사에서 7.4%, 이번 3차 조사에서 9.5%로 비토세력이 점차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 대선후보로 등장하고 야권 단일후보 확정되는 과정을 거치면서 비토세력도 함께 증가한 것이다. 그렇지만 문재인 비토세력에는 부동층의 5.7%, 무당파의 4.4%만 포함되어 있다는 점에서 박근혜 후보와는 차이를 보인다.

[그림3] 당선되어서는 안 되는 후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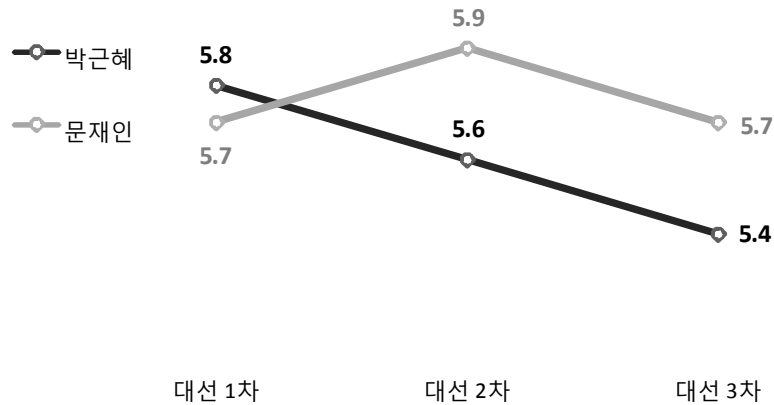


## 5. 대선후보 호감도와 이념성향 인식 변화

- 두 후보에 대한 호감도 동반 하락
- 보수적인 이미지 견고한 박근혜 후보, 중도로 이동한 문재인 후보
- 10점 만점으로 대선후보의 호감도를 조사한 결과, 두 후보 모두 호감도가 대선 2차 조사결과와 비교하여 약간 하락한 가운데 문재인 후보(5.7점)가 박근혜 후보(5.4점)보다 우위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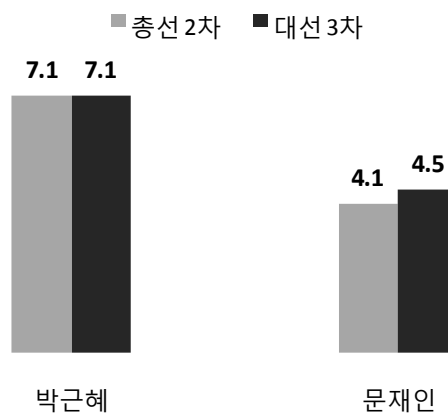


[그림4] 후보 호감도(점)



- 후보의 이념성향에 대한 인식에 있어서도 박근혜 후보는 그동안의 복지행보에도 불구하고 보수적 정치인으로서 인식을 전혀 개선하지 못하였다. 매우 진보인 경우를 0점으로 그리고 매우 보수인 경우를 10점으로 하여 총선 후 실시한 지난 4월 조사(총선 2차)에서의 박근혜 후보에 대한 이념좌표 점수는 7.1점이었으나 이번 조사에서도 7.1점으로 그대로 유지되고 있었다. 한편 새누리당의 이념좌표 역시 7.1점으로 조사되었다.
- 이에 비해 문재인 후보의 이념성향은 4.5점으로 총선 2차 조사에 비해 진보(4.1점)에서 약간 중도 쪽으로 이동하였다. 이는 일련의 진보정당 사태에 따른 민주당과의 차별화나 중도세력의 지지층 유입의 결과로 볼 수 있다. 민주통합당의 이념좌표는 4.4점에서 4.5점으로 조사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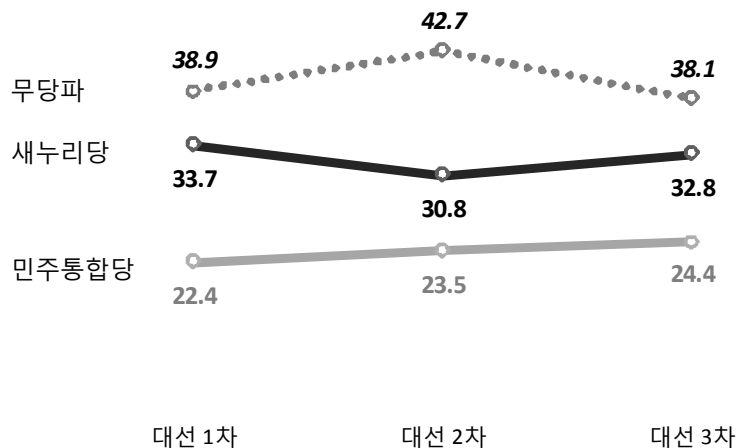
[그림5] 후보의 이념성향 인식(점)



## 6. 정당지지율 정체와 무당파의 선택

- 새누리당 지지율 32.8% 민주통합당 지지율 24.4%
  - 무당파 42.7%에서 38.1%로
  - 무당파 지지율 박근혜 후보 29.6%, 문재인 후보 45.6%
- 본격적인 대선캠페인이 시작되고 대선후보의 지지율은 상승하였지만 여당과 제1야당의 지지율은 거의 변화가 없다. 새누리당의 경우 지난 2차 조사에 비해 2.0% 포인트(p) 증가한 32.8%로 나타났지만 총선 직후인 대선 1차 조사 시기의 33.7%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민주통합당 역시 문재인 후보의 지지율 증가에도 불구하고 정당지지율은 24.4%로 지난 2차 조사 때보다 0.9% 포인트(p) 증가에 그치고 있다. 무당파의 규모는 지난 2차 조사결과(42.7%)보다는 약간 감소하였지만 여전히 38.1%의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그림6] 정당지지율의 변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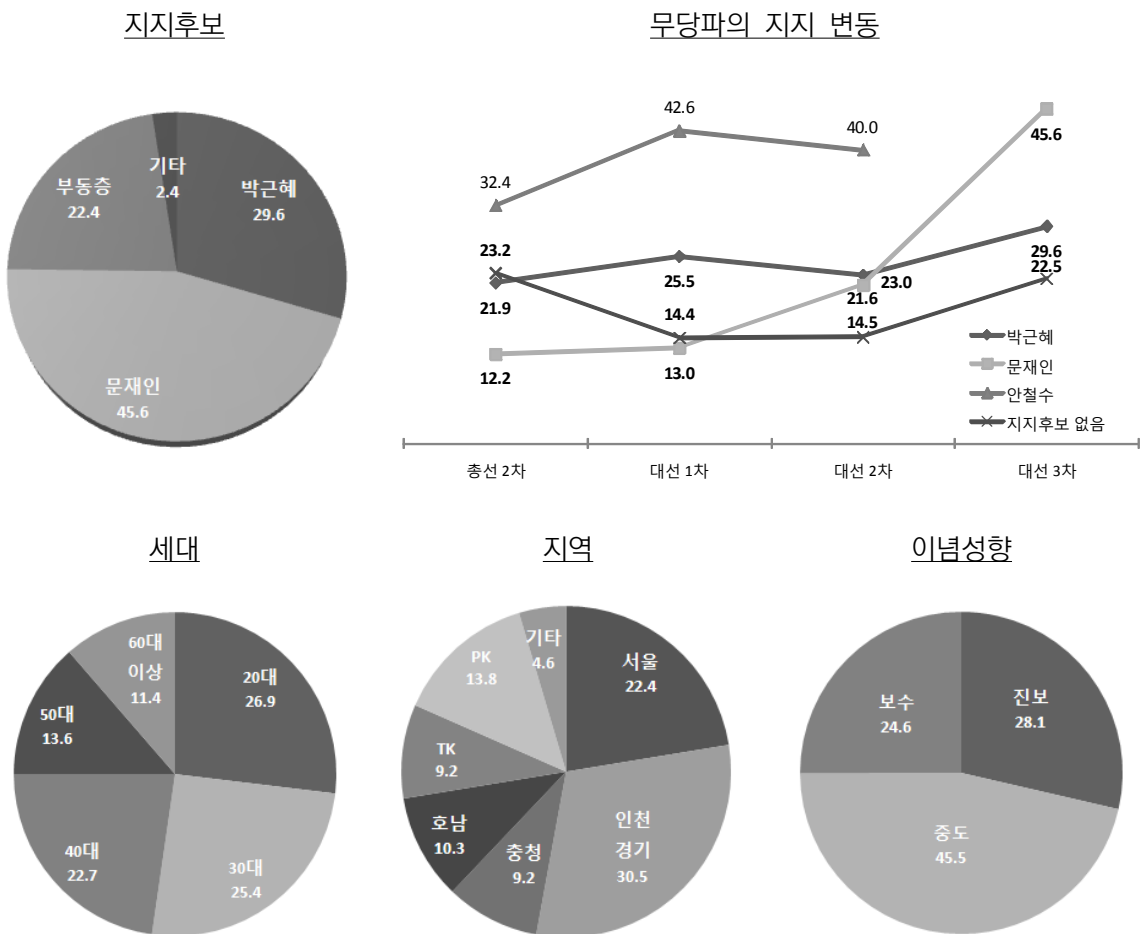
- 이에 따라 무당파의 선택이 대선의 중요한 변수가 되고 있다. 이번 조사에서 나타난 무당파에 서의 지지도를 보면 박근혜 후보가 29.6%, 문재인 후보가 45.6%였다. 문재인 후보의 지지율이 높은 가운데, 22.5%는 부동층으로 남아 여전히 높은 비율을 나타냈다.
- 무당파층의 지지변동을 보면 야권단일화 이후 대체로 문재인 후보 지지로 이어지거나 혹은 부동층으로 남는 양상을 보이며 일부는 박근혜 후보 지지로 전환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이들 무당파의 특성을 보면, 먼저 연령별로는 젊은 층의 비율이 높다. 즉 무당파의 세대별 구성비는 20대 26.9%, 30대 25.4%, 40대 22.7%, 50대 13.6%, 60대 이상 11.4%의 순이었다. 세대 내 구성비를 보면 20대의 경우 56.2%, 30대는 47.3%로 높고, 40대는 39.5%로 다소 낮고, 50



대는 27.7%, 60대 이상은 21.8%로 크게 감소한다.

- 이념별로는 중도층이 45.5%로 거의 절반 수준인 가운데, 진보층 28.1%, 보수층 24.6%로 구성되어 있다. 구성비율을 살펴보면 진보층의 40.9%, 중도층의 45.0%, 보수층의 30.6%가 무당파이다.
- 지역별로는 서울과 경기지역의 무당파 비율이 높고 다른 지역은 10% 내외로 비슷한 수준이다. 구체적으로 무당파의 지역별 구성비는 서울 22.4%, 경기 30.5%, 부산경남 13.8%, 광주전라 10.3%, 대전충청 9.2%, 대구경북 9.2%, 기타 4.6%의 순이다.
- 결국 현재의 무당파는 주로 20~30대와 서울경기지역 거주자들이 중도이념성향의 주류를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7] 무당파의 선택과 특성(%)





## 7. 대선후보 지지의 핵심 고려사항

- 확장되는 정책공약 및 소속정당의 영향력
- 후보에 대한 지지선택의 핵심 고려사항은 국정운영능력(능력과 경력, 35.4%)이 지난 조사와 마찬가지로 1순위를 기록하였다. 하지만, 2순위와 3순위가 자리가 바뀌어 이념과 공약(21.1%), 도덕성(19.1%)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소속정당(9.3%)으로 상대적 비율이 약간 증가하였다.
- 본격적 대선 캠페인의 시작과 함께 후보의 정책공약 및 소속정당의 영향력이 확장되고 있음도 보여주는 결과이다.

[표2] 대선후보 지지선택의 핵심 고려사항(%)

	대선 1차	대선 2차	대선 3차
소속정당	5.3	6.2	9.3
능력과 경력	33.2	38.9	35.4
도덕성	32.3	23.1	19.1
이념과 공약	16.7	19.7	21.1
당선가능성	7.1	5.6	7.8
출신지역	0.5	0.8	0.8
기타	4.8	5.5	4.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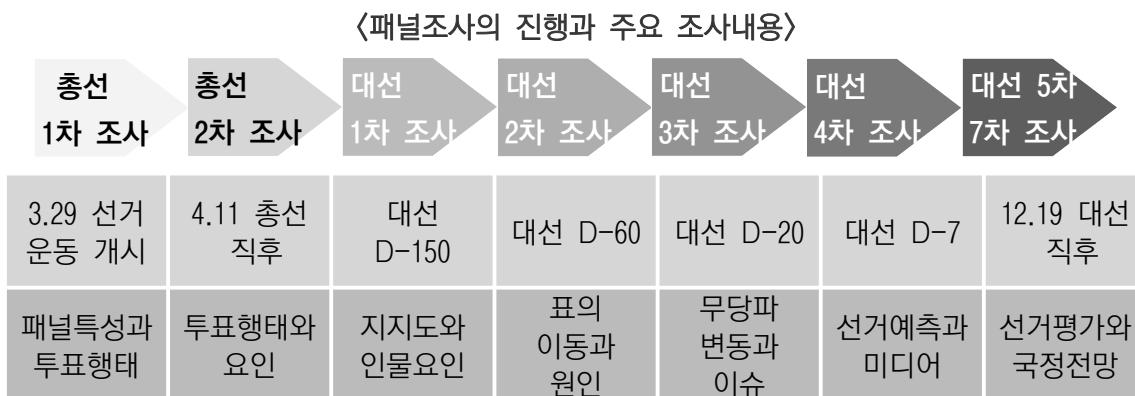


## EAI · SBS · 중앙일보 · 한국리서치 공동 "2012 총선 · 대선 패널조사"

EAI의 선거 패널조사는 SBS 중앙일보 한국리서치와 공동으로 2006년 제4회 전국지방선거에서 한국 최초로 패널조사기법을 도입하여 진행한 것에서부터 출발한다. 패널조사는 특정시점의 투표번호만을 파악하는 일회적 조사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조사방법이다. 개별 유권자의 태도변화와 그 양상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시간 흐름에 따른 표심변화의 원인을 정교하게 분석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EAI는 2006년 패널조사 이후로도 SBS 중앙일보 한국리서치와 공동으로 2007년 대선, 2008년 총선 그리고 2010년 지방선거에서도 패널조사를 진행하였으며 선거연구와 선거보도에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는 평을 받고 있다. EAI는 SBS 중앙일보 한국리서치와 공동으로 “2012 대선패널조사”를 진행한다.

EAI SBS 중앙일보 한국리서치 공동 2012 총선대선패널조사는 모두 7회(wave)를 진행한다.



## EAI 2012 패널조사 연구팀

- 위원장 : 이내영 EAI 여론분석센터 소장(고려대)
- 연구진 : 강원택(서울대) · 권혁용(고려대) · 김성태(고려대) · 김준석(동국대) · 박원호(서울대) · 박찬욱(서울대) · 서원진(성신여대) · 윤광일(숙명여대) · 이곤수(EAI) · 이우진(고려대) · 이현우(서강대) · 임성학(서울시립대) · 장승진(국민대) · 정원철(EAI) · 정한울(EAI) · 지병근(조선대)
- 언 론 : 신창운(중앙일보) · 현경보(SBS)
- 조사팀 : 김춘석 · 오승호 · 유석상 (이상 한국리서치)

## 대선3차 패널조사 개요

조사일시	2012년 11월 25 - 27일 (3일간)
표본크기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유권자 패널 1,416명
표본추출	지역 · 성 · 연령 비례층화 후 무작위 추출 (학력/직업/자가소유 비율 반영)
표집오차	무작위추출을 전제하면 95%신뢰수준 ±2.5%
패널유지율	70.8% (최초 패널 2,000명 기준)

이 보고서는 보고서에 실린 견해는 저자 개인의 것으로 EAI나 EAI 여론분석센터 전체의 의견을 대표하지 않습니다. 이 보고서에 실린 내용의 일부나 전체에 대한 무단 사용을 금하며, 인용 시에는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내용문의 EAI 정한울 여론분석센터 부소장(02-2277-1683 내선102, 010-4280-3230, [hwjeong@eai.or.kr](mailto:hwjeong@eai.or.kr))

EAI 정원철 여론분석센터 선임연구원(02-2277-1683 내선105, 017-279-4536, [cwc@eai.or.kr](mailto:cwc@eai.or.kr))

조사문의 한국리서치 김춘석 수석부장 (02-3014-0082/016-9525-8416/[cskim@hrc.co.kr](mailto:cskim@hrc.co.kr))



## 2012 EAI 여론브리핑 시리즈

- 116호 “2012 파워정치인 신뢰도·영향력 조사로 본 권력지도의 변화와 대선 정국 전망” 정한울.(2012. 5. 31)  
 117호 “여론으로 본 경선국면 전환기의 대선구도 평가” 정한울. (2012. 7. 1)  
 118호 “안철수 현상의 진화? 안철수 바람의 연속성과 차별성” 정한울. (2012. 7. 29)  
 119호 “박근혜 현상 vs 안철수 현상의 충돌 : 지지요인 및 후보 이미지 포지셔닝 맵” 정한울. (2012. 9. 2)  
 120호 “새누리당 경선 직후 조사의 주요결과” 정원철 · 이근수 2012-09-07  
 121호 “안 출마 이후 선거구도 변화: 당선가능성은 안철수, 단일후보는 안·문 팽팽” 정한울. (2012. 9. 23)  
 122호 “2012 대선2차 패널조사 유권자 지지행태 변동의 크기와 원인” 이근수 · 정원철. (2012. 10. 21)  
 123호 “2012 대선2차 패널조사의 주요결과” 정원철. (2012. 10. 25)  
 124호 “세 후보 약점이 공존하는 균형 : 후보등록 한달 전 대선여론” 정한울. (2012. 10. 28)  
 125호 “단일화 파행의 결과 : 부동산 늘고, 안 하락·문 지지강도 약화 ” 정한울. (2012. 11. 18)  
 126호 “대선 3차 패널조사의 주요결과” 정원철. (2012. 11. 30)

## 2012년 EAI 오피니언리뷰 시리즈

- 2012-07호. “출사표를 통해 본 대선유력주자 인지지도(cognitive map)” 정한울. (2012. 8. 12)  
 2012-08호. “지역주의 투표행태의 변화를 통해 본 2012 대선 예측: 지역투표 약화될 것인가? 교차압력(cross-pressures)이 변수” 정한울. (2012. 8.31)  
 2012-09호. “2012 대선 불확실성 특성 분석 : 적대적 이분법 구도의 약화와 여당 전략 변화” 정한울 (2012. 9. 21)  
 2012-10호. “제18대 대선에서 야권 후보단일화의 전망과 한계” 장승진. (2012. 10. 21)  
 2012-11호. “수도권 40대 무당파의 대선경쟁 한 달 평가: 기대와 실망의 공존” (FGD결과 분석) 장한울. (2012. 10. 29)  
 2012-12호. “2012 삼국지 최종 승자 결정할 세대변수 점검” 정한울. (2012. 10. 29)  
 2012013호. “안 확장성의 격차 요인과 새누리당 지지층의 역선택 경향 변화” 정한울. (2012. 11. 7)

## 2011년 EAI 여론분석 단행본 시리즈

- 여론분석6. 이내영·임성학(공편) 《변화하는 한국유권자4: 패널조사를 통해 본 2010 지방선거》 서울: EAI  
 여론분석7. 강원택·이내영(공편) 《한국인 우리는 누구인가? 여론조사를 통해 본 한국인의 정체성》 서울: EAI

